

경륜 베테맥은 어디로? 고객환급·세금 그리고 사회 환원

<72%>

<16%>

<12% 중 경기 개최경비 제외한 전액>

경륜은 두 바퀴로 굴리는 사탕입니다

■ 두 바퀴의 아름다운 나눔 - 베테맥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꿈의 2007배!

지난해 4월 5일 경륜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시즌 최고 배당이 나온 것이다.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14경주에서 김재국과 강병철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쌍승식 2007배의 책뎡을 터뜨렸다. 쌍승식 전광판에 2007이라는 숫자가 섰었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우와! 대박" "누구야, 팔자 고쳤겠네!" 하며 웅성거렸다. 1만원을 베테맸다면 무려 2000만원 이상을 챙겨 간 것이다. 이날 삼복승과 복승에서도 각각 1132배와 663배가 나오는 등 5개 베테팅 방식 중 4개가 시즌 최고배당을 기록했다. 경륜팬들 사이에선 잊지 못할 배당이 있다. 4591배. 2009년 경륜 20년 사상 최고 배당률이다. 경륜팬이라면 누구나 '4591'을 꿈꾸며 경주권 구매표에 검은 사이펜을 긋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이렇게 고배당을 적중시켰을 경우 '시행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손해 좀 봤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그럴까. 또 '내가 경륜 경주에서 베테팅한 돈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것일까'하고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모두 국민체육진흥공단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까. 경륜 경주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자.

상호간 베테팅하는 패리뮤추얼 시스템
매출액 72%는 고객 배당금으로 환급
16% 세금...대기업보다 높은 납부율
나머지 수익 12% 대부분은 사회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동아 공동기획

●고배당이 터지면 시행체는 이익일까, 손해일까

경륜·경정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베테팅한 번호에 대한 배당률이 전광판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이것은 고객이 시행체를 상대로 돈을 거는 것이 아니라 고객 상호간에 돈을 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같은 베테팅 시스템을 '패리뮤추얼(Parimutuel)'이라고 한다. 전 세계 경륜 경정 경마 등 시행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베테팅 방식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내기의 배당률은 고정된 것이었다. 시행체의 이득과 손실이 경주결과와 무관한 패리뮤추얼 방식은 '고정승률방식'보다 진보된 베테팅 방식이다. 패리뮤추얼은 프랑스어로 '상호간에 서로 돈을 걸다'(Pari Mutuel)는 뜻이다. 1891년 프랑스 당국은 패리뮤추얼 베테팅을 합법화하고 기존의 고정승률 베테팅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후 패리뮤추얼 방식은 전 세계의 경마장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유사한 경륜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했다.

경륜고객들 중 일부는 고배당이 연출되면 시행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경주결과에 따라 시행체의 수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주결과에 시행체가 임의로 개입한다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 많은 경륜·경마시행국에서 패리뮤추얼을 기본적인 베테팅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을 말하면 고배당과 시행체의 손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경륜 매출액은 모두 국민체육공단 몫이 아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륜 총매출액은 2조2019억원이었다. 합법적 사행산업 중 경마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매출액 규모로 보면 20대 기업에 달하는 매출액이다. 그러나 이 매출액이 모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입은 아니다.

먼저 경륜매출의 수익구조를 살펴보자. 고객들이 경륜경주에 베테팅한 매출액의 72%는 적중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된다. 전국의

경륜팬이 100원을 베테팅하면 72원은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패리뮤추얼은 이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고 고객끼리 베테팅을 하는 것이다.

고객환급금 72%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각종 세금이다. 매출액의 16%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포함된다. 경륜 세금 16%는 매출액 대비 세금납부율로 보면 대기업보다 많은 수치다.

나머지 12%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들어오는 발매수익금이다. 그러나 발매수익금 모두를 공단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금 12% 중 경기 개최경비를 뺀 뒤 나머지(수익금)는 전액 사회 환원된다. 이 수익금은 다시 4개 기금과 지방재정지원, 공익사업에 쓰인다.

수익금 중 40%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몫으로 들어가고, 24.5%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9.5%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쓰인다. 또 지방재정지원 명목으로 10%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4%, 문제부흥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2%가 배분돼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쓰이고 있다. 물론 배분률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수익금은 479억8300만원으로 이 중 약 218억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103억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결국 경륜에서 베테팅한 돈의 대부분은 자신 혹은 다른 고객이 환급 받는 셈이다. 그밖에 세금과 각종 공익기금으로 배분돼 사회 환원된다. 베테팅이 적중되면 돈을 벌어 기분 좋고, 적중이 실패하더라도 '좋은 일에 쓰는구나'하고 느긋해하면 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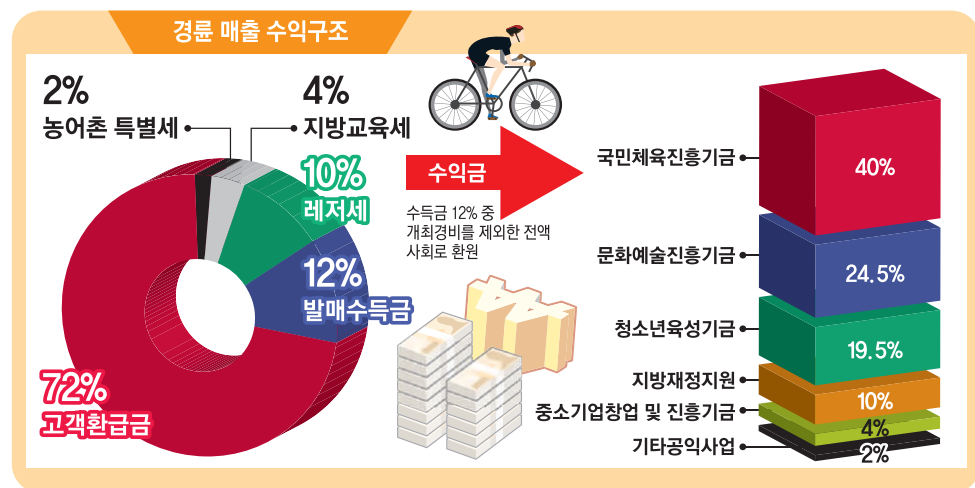
사족, 건전 베테팅을 위한 팁 세 가지. 첫째,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확률을 존중할 것, 둘째 베테팅 하러 갈 때 신용카드는 집에 두고 하루의 베테팅 금액을 정해 그 액수만 지참할 것, 셋째 경제적 능력에 맞게 베테팅할 것. 참고로 전문가들은 오락문화지출(베테팅) 비용이 월 소득액의 3.5% 수준 내외가 적당하다고 권한다.

연재호 기자 so@donga.com



경륜이 폐달을 돌릴 때마다 따뜻한 나눔이 이어진다. 고객들이 경륜 경주에 베테팅한 매출액의 72%는 적중 고객에게 환급금으로 지급되고 매출액의 16%는 국가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된다.

스포츠동아DB



인공디스크치환술로 튼튼한 허리 되찾자

컴퓨터는 이제 필수품이 됐다. 이 훌륭한 '문명의 이기'는 한편에선 건강을 괴롭히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앉아 있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오랜 시간 앉아 있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때 흐트러진 자세는 근육이나 척추관절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 같은 영향으로 발생하는 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질환이 허리디스크다. 허리디스크란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척추 사이의 디스크 조직이 퇴행성 변화나 외부 자극에 의해 탈출되는 질환이다.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요인이다. 최근엔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잘못된 자세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허리디스크는 허리통증뿐만 아니라 허벅지와 종아리 등 하반신에 신경마비증세를 유발하기도 한다. 허리디스크를 방치하면 극심한

통증, 대소변장애, 운동장애, 하반신마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후에는 기존의 물리치료나 경막외신경성형술 등 비수술치료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디스크의 손상이 심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디스크 손상이 심각한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방법으로 수술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수술치료를 진행할 때에는 우선 비수술치료 가능성을 고려한 뒤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수술치료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극심한 손상의 디스크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인공디스크치환술이다. 인공디스크치환술은 손상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뒤 인공의 디스크를 새로이 삽입하는 수술이다.

등 절개 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가능

시술은 국소 마취상태에서 3~4cm 크기로 복부를 절개한 후 이루어진다. 등을 직접 절개하지 않아 척추에 흡수 모를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줄어 치료가 가능하고, 이후 미세현미경을 통해 병변을 확인하며 손상된 디스크 및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인체공학적인 인공디스크를 삽입해 확실한 기능 회복을 이뤄낸다.

인공디스크치환술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통증의 즉각적인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음은 물론 기존의 디스크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수술의 확률이 낮고 한번 삽입된 디스크 조직은 반영구적으로 기능해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공디스크치환술은 높은 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남메디포병원 신경외과 윤강준 원장

대웅, 발기부전 치료제 '타오르' 출시



대웅제약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 대웅제약은 타

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다양한 형태와 복용법의성을 강조한 '타오르(사진)'를 4일 출시했다.

현재 타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60여 개사 150여개의 제네릭이 출시해 시장 선점을 위한 제약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2년 실테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 특허 만료 당시 11개 제약사의 21개 품목이 제네릭 시장에 진출한 것과 비교하면 시장 경쟁이 훨씬 뜨겁다. 타다라필 성분은 실테나필에 비해 홍조나

두통 등의 부작용이 적고 약효 지속시간이 36시간으로 길다.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꾼 의약품에 가리키는 용어로 과거에는 '복제약' '카피약'으로 불렸으나 제약협회에서 공식명칭을 제네릭으로 정했다.

대웅제약의 '타오르'는 정제와 필름형 두 가지다. 정제는 5mg, 10mg, 20mg 세 가지 용량이 있고, 특히 그 중 10mg, 20mg의 제품에는 분할선을 삽입해 용량 조절이 쉽다. 필름형은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직장인과 중년층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약 1000억원으로 이중 타다라필 성분의 제품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광동제약 '비타500 수능 대박' 이벤트



광동제약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비타500을 선물하는 '2015 비타500 고3 수험생 수능 대박 지원 프로젝트(사진)'를 시작했다. 이벤트 사이트에 '착한 응원 남기기'를 통해 메시지를 남기거나 '착한 응원 공유하기'를 통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 참여할 수 있다. 30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참여한 학교 중 응원 메시지 수와 공유 횟수를 합산해 1위를 한 학교에 비타500과 함께 모뎀 수지가 직접 방문한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건강관리 앱 '눔 헬스' 도입

모바일헬스케어 회사 '눔'과 업무협약
만성질환자 식사·운동 기록 치료 활용

당뇨환자인 한모(52) 씨는 10여 년 동안 당뇨를 앓아왔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관리도 꼼꼼하게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혈당체크는 물론 병원을 찾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운동을 하다가도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식사를 할 때도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신경 쓸 일이 많다. 체중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모바일 앱으로 하는 디지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역거점 병원에서 처음 도입해 화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7일 글로벌 모바일헬스케어 회사인 '눔'과 디지털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내원 환자 중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눔'의 건강관리 모바일 솔루션 앱 '눔 헬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병원 가정의학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등 총 4개 진료과가 참여하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는 재진료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엄격한 생활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당뇨환자 내원이 많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내분비내과의 경우 재진료까지 소요되는 1개월 안팎의 기간 동안 환자의 엄격한 생활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치료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했다.

이제 모바일 앱 프로그램 도입으로 환자가 생활 속 건강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또 식사, 운동, 수면 등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건강상 항목들을 기록해 진료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왼쪽)과 글로벌 모바일헬스케어 '눔'의 정세주 대표가 7일 디지털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모바일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사용자들은 '눔 헬스'를 통해 환자의 식사기록과 운동기록 체크를 직접 할 수 있고 '눔'의 라이프스타일 코치를 통해 1:1 맞춤 생활 습관 개선 코칭 서비스를 받게 된다. '눔 헬스'를 실행하고 키, 체중, 성별, 나이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하루 섭취 칼로리가 정해진다. 식사 기록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섭취한 칼로리가 계산된다. 또 만보기 기능과 운동하면서 소모되는 칼로리 계산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눔 헬스'에 기록된 환자의 식단 및 운동 정보는 요약된 형태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달되며 환자 내원 시 지난 한 달간 생활습관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하게 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그동안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엔 환자 중심의 스마트 헬스플랫폼 구축 기반을 다질 수 있어 환자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앞으로 중국 등 해외진출 프로젝트도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재호 기자